

갈라디아서 6:6-10에 나타난 가르치는 자와 공동체의 상호 책임

이성아 (주저자, 한국성서대학교 부교수)
남선우 (교신저자, 열림교회, 목사)

- I. 들어가는 말
- II. 역사적·문화적 배경: 고대 사회의 교사와 멘토링
 1. 헬라-로마 사회의 교사 지위와 교육의 변질
 2. 유대 사회의 멘토링과 이웃관
 3. 상호 책임의 맥락과 6:6의 '코이노니아'
- III. 갈라디아서 6:6-10의 주해와 신학적 함의
 1. 신학적 문맥: 자유와 성령 안에서의 삶
 2. 6:6-10절 본문 주해: 공동체적 책임과 지속성
- IV. 갈라디아서 6:6-10의 멘토관에 대한 신학적 함의
 1. 멘토 권위와 메시지 : 그리스도의 계시와 십자가
 2. 멘토의 정체성: 헛된 영광을 거부하는 온유함
 3. 제자도의 궁극적 목적: 새로운 피조물로의 변화
- V. 현대 그리스도 공동체에서의 멘토링 실천
 1.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상호 돌봄과 책임 이행
 2. 복음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자기 의와 헛된 영광의 포기
 3. 영적 심음의 원리를 공동체 내 지원으로 구체화
- VI. 나가는 말

• ABSTRACT •

The Mutual Responsibility between the Teacher and the Community in Galatians 6:6-10

Professor, Lee, Seongah (Korean Bible University)
Pator, Nam, Sunwoo(Yulim Presbyterian Church)

This study analyzes Paul's admonition concerning the mutual responsibility between the teacher and the community in Galatians 6:6-10, redefining 'the one who is taught the word' (τὸν κηρυττοῦ) not merely as a conveyor of knowledge but as a 'Mentor'. This relationship is predicated upon 'Koinonia' (κοινωνία)-a holistic sharing of life and spiritual resources—beyond material support. Paul's command provides an alternative community ethic that counters the structural dependence of teachers in Greco-Roman society and the exclusive communal practices of Jewish tradition, establishing teachers and students as equal partners in the Gospel. Theologically, the research highlights the principle of sowing and reaping (6:7-8), extending ethical practice into the spiritual principle of 'sowing to the Spirit'. Sowing to the flesh reaps 'corruption' (destruction), while sowing to the Spirit ultimately reaps 'eternal life'. The mentor's identity is defined by the rejection of empty glory and the practice of self-examination when restoring members with a spirit of gentleness. The ultimate goal of this discipleship is the formation of a 'new creation' (6:15), fulfilling the Law of Christ (6:2) within a community where all old distinctions are invalidated. Based on these foundations, the study proposes concrete practices for contemporary Christian communities, including ensuring the sustainability of ministry through practical support for the mentor (6:6), urging perseverance in doing good (6:9), and prioritizing good deeds 'especially to those who belong to the family of faith'(6:10).

Key words: Galatians 6:6-10, Paul's Mentoring, Koinonia, Mutual Responsibility, Biblical Mentoring, Christian Ethics

I. 들어가는 말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인 율법을 통한 구원관에 맞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변호한다.¹⁾ 이와 같은 진리에 기반한 자유는 필연적으로 윤리적 실천으로 이어지며,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6장 10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따라(5:25)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권면을 담고 있다.²⁾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6장 6-10절은 이 윤리적 권면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상호 책임과 선행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가르침을 제시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본 연구가 6장 6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τῷ καθηκῶντι)를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닌 ‘멘토’(Mentor)로 재정의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재정의는 6절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κοινωνεῖτω)라는 명령이 단순한 구체나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코이노니아’(κοινωνία), 즉 삶과 영적 자원을 공유하는 전인격적 관계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의도한 가르침에서의 관계는 일방적인 말씀을 가르치는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성령 안에서 삶을 나누며 함께 성숙해가는 과정이며, 교사 사역의 신학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공동체적 윤리를 보여준다.³⁾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상호 책임적이고 관계 지향적인 특성을 현대적 함의인 ‘멘토’라는 용어로 명명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 Schreiner, Thomas R. *Galatians*, 김석근 역, 『강해로 푸는 갈라디아서』(서울: 도서출판 디모테), 93.

2) 이한수, 『갈라디아서』(수원: 도서출판 햇불, 2003), 545-546; deSilva, David A. *The Letter to the Galatians*, 김귀탁 역, 『갈라디아서』(서울: 부흥과개혁사, 2022), 530-531.

3) Jan Lambrecht, "Paul's Coherent Admonition in Galatians 6,1-6: Mutual Help and Individual Attentiveness," *Biblica* 78/1(1997), 39.

기존 선행 연구에서 갈라디아서 6:6-10은 주로 심음과 거둠의 보편적 윤리 원리나 선행의 인내(견인)에 초점을 맞추었으나,⁴⁾ 본 연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대 교사-멘토 문화 담론과 연결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자(멘토)의 역할과 그 공동체적 지원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갈라디아서 6:6-10의 헬라이어 원어 주해 및 신학적 문헌 고찰을 기반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받는 자의 상호 책임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현대 공동체 내 멘토 역할과 선행 실천의 구체적 함의로 도출하는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갈라디아서 6장 6-10절의 주해를 통해 공동체 내 멘토의 역할과 사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신학적 기초를 규명한다. 둘째, 멘토링의 윤리적 권면(6:9-10)이 단순한 도덕률이 아닌 '성령을 위하여 심는'(6:8) 영적 원리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멘토의 정체성을 재정립한다. 셋째, 이러한 신학적 원리를 현대 목회 상황에 적용하여, 율법주의와 헛된 영광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멘토링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II. 역사적·문화적 배경: 고대 사회의 교사와 멘토링

갈라디아서 6장 6-10절에 나타난 바울의 윤리적 권면, 특히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상호 책임에 대한 명령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선행적 고찰이 필요하다. 바울의 갈라디아서의 메시지는 헬라-로마의 교육적 관습과 유대교의 전통이라는 구

4) 보편적 윤리원리에 관해서는 Daramola Yetunde Bamidele et al., "Pauline Concept of Sowing and Reaping in Galatians Chapter 6:7-8 and Its Implication for Contemporary Church," *Arts & Humanities Open Access Journal* 7/2(2025), 27을 보라; 선행의 인내에 대해서는 Aaron Michael Jensen, "Μὴ ἐκλύομενοι in Galatians 6:9," *Tyndale Bulletin* 69/1 (2018), 97을 참고하라.

체적인 역사적 정황 속에서 선포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당시 교사의 사회적 지위와 멘토링 풍습을 조망함으로써, 바울이 제시한 ‘코이노니아’와 ‘상호 지원’의 명령이 당시 문화와 어떻게 대조되며 독창적인 공동체 윤리로 기능했는지 그 역사적 맥락을 분석하고자 한다.

1. 헬라로마 사회의 교사 지위와 교육의 변질

고대 로마 사회에서 교사의 사회적 지위는 신분적 한계와 경제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낮은 위치에 머물러 있었다. 당시 교사 집단은 주로 노예나 해방노예 출신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러한 태생적 배경은 그들을 로마 사회의 독특한 위계질서인 파트로누스(patronus)와 클리엔테스(cliens) 관계망 속에서 피후원자라는 종속적 위치에 처하게 하였다.⁵⁾ 파트로누스인 귀족에게 후원을 받고 충성을 제공해야 하는 이러한 사적 관계는 교사의 직무 수행에 있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궁핍 또한 교사의 사회적 위상을 위축시키는 주된 기제였다. 로마인들은 교육을 국가의 공적 과업이 아닌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간주하였기에, 교사들은 생계를 전적으로 학부모와의 사적 계약에 의한 수업료에 의존해야 했다. 이러한 수입 구조는 교사들을 만성적인

5) 박영희, “고대 로마의 교사연구,” 『교육철학연구』 36/3(2014), 36-38. 파트로누스(patronus)와 클리엔테스(clientes) 간의 사적 후원 관계(personal patronage)에 대한 정의와 구체적인 교환 방식은 해당 페이지를 참조하라. 이 연구에 따르면 로마의 후원 제도는 “불평등한 사회적 지위를 지닌 사람들 간에 맺는 지속적이고 상호적이면서도 비대칭적인 교환 관계”로 정의된다. 파트로누스(귀족 또는 옛 주인)는 클리엔스(피보호인)의 삶에 안전과 보호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클리엔스는 파트로누스에게 신의와 충성을 바친다. 특히 신분 상승을 꾀하는 교사들에게 파트로누스는 출세의 열쇠인 추천서를 써주거나 학생을 모을 수 있도록 평판을 형성해 주었으며, 이에 대한 보답으로 교사는 자신의 저술을 파트로누스에게 헌정하거나 그의 가문 교육에 헌신하는 방식으로 후원에 보답하였다.

빈곤과 채무 불이행의 위협에 노출시켰을 뿐만 아니라, 교육 내용의 선택권이 학부모의 요구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교권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빠른 출세를 위해 실용적인 성과를 강요하였고, 생계가 불안정한 교사들은 이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⁶⁾

이러한 열악한 지위는 제정 후기에 이르러 국가나 시(市)당국이 교사의 자격을 관리하고 덕과 학식을 갖춘 자에게 ‘교수자격증(licentia docendi)’을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일정 부분 공적 성격을 띠기 시작하였다.⁷⁾ 비록 외부적인 사회적 지위는 미약하였으나, 로마의 교사들은 스스로를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닌 언어와 전통의 수호자로 인식하며 내면적인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견지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⁸⁾

2. 유대 사회의 멘토링과 이웃관

바울은 회심 이전에 유대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대단한 열정을 지녔으며, 조상들에게서 내려온 전승(παράδοσις)을 배우고 철저히 준수하는 환경에서 자랐다.⁹⁾ 유대 사회에서 교육과 전승의 핵심인 모세의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랍비 전통은 일종의 감독 체계로서 멘토링의 기능을 수행했을 것이고, 바울은 랍비 전통에 따라 스승-제자 관계에 익숙했을 것으로 판단된다.¹⁰⁾

6) Rodney P. Robinson, “The Roman School Teacher and His Reward,” *The Classical Weekly* 15/8 (1921), 57.

7) 박희영, “고대 로마의 교사연구,” 『교육철학연구』 36/3(2014), 36-37.

8) 박희영, “퀸틸리아누스의 『옹변가교육』에 나타난 ‘선한 사람(Vir Bonus)의 의미,’” 『교육철학연구』 35/ 4(2013), 34, 40

9) Longenecker, Richard N, *Galatians*, 이덕신 역, 『WBC 갈라디아서 주석』(서울: 솔로몬, 2003), 287.

10) Orlando Rivera, “Mentoring Stag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Barnabas and

바울은 이 율법의 역할을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아이를 지도하는 초등학교 사 또는 후견인의 역할에 비유했다.¹¹⁾ 고대 로마 사회에서 파이다고고스(παιδαγωγός)는 유년기에 도덕적 감화력을 행사하며 아동을 보살피고 감독하는 양육자의 역할을 맡았다.¹²⁾ 이처럼 율법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자유를 얻기 전까지 믿는 자들을 속박하고 지도하는 임시적이고 감독적인 멘토링 기능을 수행했으며,¹³⁾ 이는 바울로 하여금 외적인 것에 집중된 바리새인의 생활 방식을 고수하고 스스로 율법을 흠 없이 지켰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¹⁴⁾

이러한 율법 전승 체계는 이방인과의 지나친 교제를 막아 이스라엘의 독특한 도덕적 생활과 순결을 유지하는 것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나, 그 결과 언약 공동체 바깥의 사람들을 이웃으로 여기지 않는 배타적인 이웃관으로 이어졌다.¹⁵⁾ 율법사들이 예수께 “누가 나의 이웃인가?”라고 묻은 것은 유대교의 배타적인 이웃관을 반영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 이러한 민족주의적 이웃관을 비판하신 것으로 판단된다.¹⁶⁾ 따라서 안디옥 사건에서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의 식탁 교제를 기피한 것은 이러한 유대 전승적 배타성의 발로이자, 자신의 확신을 따르지 않은 자기모순(위선)으로 지적되었다.¹⁷⁾ 바울은 이 행위를 단순히 유대 관습의 문제가 아닌, 복음의 진리가 위협받는 신학적 문제로 파악했다.¹⁸⁾

Paul,” *Biblical Perspectives* (May 2007), 2.

11) Osborne, Grant R. *Galatians*, 김진선 역, 『갈라디아서』(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09), 170, 172.

12) 박희영, “퀸틸리아누스의 『웅변가교육』에 나타난 ‘선한 사람’(Vir Bonus)의 의미,” 1.

13) Longenecker, Richard N, *Galatians*, 384.

14) Osborne, Grant R. *Galatians*, 162.

15) 이한수, 『갈라디아서』, 137.

16) 이한수, 『갈라디아서』, 192.

17) Longenecker, Richard N, *Galatians*, 293.

3. 상호 책임의 맥락과 6:6의 ‘코이노니아’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명령은 고대 사회의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고 해석된다. 헬라-로마 세계에서 큰 가치를 지닌 선물을 받는 것은 응당 답례할 의무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으며,¹⁹⁾ 바울의 코이노니아 명령은 이러한 문화적 호혜성의 원리를 신앙 공동체 내의 영적 교제와 물질적 지원을 포함하는 상호 책임으로 승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²⁰⁾

첫째, 바울의 명령은 당시 로마 교사들이 겪던 구조적 종속성을 극복하는 대안이다. 학부모와의 사적 계약에 의존하던 수직적 위계질서와 달리, 바울의 ‘함께 함’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를 복음 안에서 대등한 ‘동반자적 관계’로 설정한다.²¹⁾ 이는 재정적 지원을 수업의 대가가 아닌, 공동체의 영적 생명력을 위한 상호 책임임을 언급하는 것이다.²²⁾

둘째, 이는 랍비 전통이나 도제식 교육을 넘어서신 ‘믿음의 가정’(6:10)으로서의 연대를 의미한다. 율법 준수 여부로 이웃을 구분했던 배타적 유대 관습과 달리, 바울은 이를 성령 안에서 서로의 짐을 지는(6:2)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규정한다.²³⁾ 즉, 물질적 후원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갈3:26) 새로운 가족정체성을 확인하는 코이노니아의 핵심 가치가 된다.²⁴⁾

18) deSilva, David A, *The Letter to the Galatians*, 김귀탁 역, 『갈라디아서』(서울: 부흥과 개혁사, 2022), 249.

19) 이민규, “그리스로마 문화의 *χάρις*, 데리다의 불가능한 선물, 그리고 로마서의 *χάρις*,” 『신약연구』 10/2(2011), 243.

20) 차정식, “바울의 ‘코이노니아’와 사회복지 사상,” 『신학사상』136(2007), 75.

21) Stott, John, *The Message of Galatians*, 정옥배 역, 『BST 갈라디아서 강해』(서울: IVP, 2008), 212.

22) 박희영, “고대 로마의 교사연구,” *교육철학연구* 36/3 (2014): 38.

23) Barclay, John M. G. *Paul and the Gift*, 송일 역, 『바울과 선물: 사도 바울의 은혜 개념 연구』(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624.

셋째, 이러한 나눔은 사역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신학적 방편이다. 말씀 사역자의 경제적 곤궁은 곧 복음 선포의 중단이라는 영적 기근으로 직결될 수 있다.²⁵⁾ 따라서 6장 6절은 개인적 차원의 구제를 넘어, 진리의 빛이 계속 비치게 하려는 공동체적 보존 전략이자 영적 전쟁의 일환으로 해석되어야 한다.²⁶⁾

III. 갈라디아서 6:6-10의 주해와 신학적 함의

1. 신학적 문맥: 자유와 성령 안에서의 삶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거짓 교사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요구하는 논지를 무너뜨리고 있다.²⁷⁾ 그들의 주장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화’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²⁸⁾ 이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바울의 메시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²⁹⁾ 율법의 행위는 칭의의 근거가 아니며,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에 기대하는 순종의 기준에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³⁰⁾ 행위로서 의로움을 얻으려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비극을 초래한다.³¹⁾ 이러한 율법주의는 심리적으로 교만과 두려움을 낳고, 행위로 의로

24) Keller, Tim, *Galatians For You*, 윤종석 역, 『당신을 위한 갈라디아서』(서울: 두란노서원, 2018), 135.

25) Luther, Martin, *Commentary on Saint Paul's Epistle to the Galatians*, 김귀탁 역, 『마르틴 루터 갈라디아서』(서울: 복 있는 사람, 2019), 512.

26) Hays, Richard B, *The Letter to the Galatians*, 안영혁·이성하 역, 『NIB 갈라디아서 주석』(서울: 도서출판 그리스심, 2021), 325.

27) Osborne, Grant R. *Galatians*, 46; Moo, Douglas J, *Galatians*, 최원용 역, 『갈라디아서』(서울: 부흥과개혁사, 2018), 43.

28) Osborne, Grant R. *Galatians*, 13.

29) 이한수, 『갈라디아서』, 60.

30) Moo, Douglas J, *Galatians*, 50.

움을 얻는 체계를 통해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고집에서 비롯된다.³²⁾

따라서 바울이 선포하는 자유는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해방이며, 이 자유는 육체를 위한 기회로 오용될 수 없다.³³⁾ 6장 1-10절의 윤리적 권면은 5장에서 논의된 성령과 육체의 타협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신학적 문맥 속에 있다.³⁴⁾ 성령은 신자들로 하여금 육체의 충동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건이다.³⁵⁾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며,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지고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영적인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다.³⁶⁾ 만일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면,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에, 빠지는 행위이며,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두고 만다.³⁷⁾ 이러한 성령의 인도는 공동체 내에서 구체적인 윤리적 실천으로 나타나는데, 바울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의 짐을 온유의 영으로 지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³⁸⁾ 이 상호적인 도움은 사랑으로써 서로 종노릇하는 일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한편, 바울은 이웃의 짐을 저주면서도 각 사람이 자기의 짐(책임과 의무)을 져야 한다(6:5)고 보완적으로 명령하는데, 이는 상호 도움과 더불어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³⁹⁾

31) deSilva, David A, *The Letter to the Galatians*, 505.

32) Osborne, Grant R. *Galatians*, 222

33) Hays, Richard B, *The Letter to the Galatians*, 28

34) 이환수, 『갈라디아서』, 547-548

35) Keller, Tim, *Galatians For You*, 245

36) deSilva, David A, *The Letter to the Galatians*, 570

37) Ibid.

38) Keller, Tim, *Galatians For You*, 245

39) Osborne, Grant R. *Galatians*, 322

2. 6:6-10절 본문 주해: 공동체적 책임과 지속성

6장 6절은 5:25~6:6까지 이어진 성도로서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지침의 결론부에 위치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한 물질적 지원 의무를 명시적으로 다루는 명령이다.⁴⁰⁾ 바울은 이 명령을 제시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윤리적 방종으로 흐르는 것을 막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구체적인 상호 책임(짐을 지는 것, 6:2)을 통해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⁴¹⁾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에 관한 교훈을 정기적으로 듣는 회중 구성원을 의미하고, ‘가르치는 자’는 거짓 교사들과는 대조되는 진정한 교사들을 가리킨다.⁴²⁾ 바울은 말씀사역 당시에 물질적, 재정적 보수를 받아야 하는 만큼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전적으로 임해야 하는 과업으로, 직업으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이들이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이와 같은 제언을 하는 것이다.⁴³⁾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것은 재정적인 후원, 실제적 물품, 서비스, 노동력과 같은 봉사뿐만 아니라 정서적 격려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된다.⁴⁴⁾ 이 구절은 바울의 다른 서신들(고전 9:3-14; 딤후 5:18)에서 설교자들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은 맥락에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자원을 나누는 것을 통해 ‘짐을 지는’ (6:2) 의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⁴⁵⁾

40) Longenecker, Richard N, *Galatians*, 606; deSilva, David A, *The Letter to the Galatians*, 583; Osborne, Grant R. *Galatians*, 324.

41) Longenecker, Richard N, *Galatians*, 594, 606.

42) Moo, Douglas J, *Galatians*, 497-498.

43) Longenecker, Richard N, *Galatians*, 594, 606.

44) Moo, Douglas J, *Galatians*, 497-498; Longenecker, Richard N, *Galatians*, 607.

45) deSilva, David A, *The Letter to the Galatians*, 583

7절은 바울은 이 단락(6:7-10)을 통해 성도들에게 새 삶을 살도록 촉구하고 있다.⁴⁶⁾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은 자기기만의 가능성에 대한 경고로, 자기기만은 성도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면서도 최종적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을 의미한다⁴⁷⁾.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는 하나님을 경멸하거나 조롱할 수 없음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⁴⁸⁾ 이는 인간이 이기적이고 악한 삶(육체를 위한 심음)을 살면서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생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비웃는 행위인 것이다. 이어서 바울은 농경 사회에서 익숙한 불변의 격언인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랴’를 인용하고 있다⁴⁹⁾. 이 격언은 물질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도덕적, 영적인 영역에서도 일관성의 원리가 적용됨을 보여주며, 곧 성도들의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시사한다.⁵⁰⁾

8절에서는 ‘심은대로 거둔다’는 격언을 5장 16-25절의 주제였던 ‘육체와 성령’이라는 신학적 대립 구도에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죄악된 본성(육체, *σάρξ*)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인생, 자원, 에너지 등을 낭비하거나 허비하는 행위이다. 그 결과는 ‘썩어질 것’인데, 이는 단순히 부패를 넘어 영원한 멸망이나 파괴를 의미하는 종말론적 심판의 결과이다.⁵¹⁾ 반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삶, 즉 공동체를 위한 봉사, 선행(6:1-6), 그리고 믿음을 통해

46) Moo, Douglas J, *Galatians*, 501-502.

47) deSilva, David A, *The Letter to the Galatians*, 585-586; Stott, John, *The Message of Galatians*, 210, 341.

48) Longenecker, Richard N, *Galatians*, 607.

49) Longenecker, Richard N, *Galatians*, 608.

50) Stott, John, *The Message of Galatians*, 208.

51) deSilva, David A, *The Letter to the Galatians*, 586-587.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에 자신과 자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뜻한다.⁵²⁾ 그 결과는 ‘영생’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 속에서 완성되는 궁극적인 축복이다.⁵³⁾

9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구체적인 행위인 ‘선을 행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을 격려하고 있다.⁵⁴⁾ 선한 일은 때때로 지치고 낙심하게 만들 수 있는 고된 일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지니’라는 권면이 필요한 것이다.⁵⁵⁾ 이러한 인내를 촉구하는 이유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약속 때문으로, 참고 인내하며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⁵⁶⁾

10절은 5:13~6:10까지의 모든 윤리적 권면의 결론이자 요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착한 일을 하되~’라는 명령은 바울의 윤리적 권면의 마무리이다. 즉, 시작 부분의 ‘사랑으로 섬김’과 마지막 부분의 ‘모두에게 선을 행함’이라는 두 명령은 전체 윤리적 단락(5장 13절부터 6장 10절까지)을 앞뒤에서 튼튼하게 ‘감싸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결국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의 총체적인 실천임을 명확히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⁵⁷⁾

성도들은 ‘기회 있는 대로’, 즉 시간이 허락하는 한 또는 하나님이 주신 전략적인 기회가 있는 한, ‘착한 일’을 행해야 한다.⁵⁸⁾ 이 ‘착한 일’은 9절의 ‘선한 일’과 동의어이며,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양선’의 실천적 표현이며, 성도의 능동적인 노력과 활동을 포함하는 권면이다.⁵⁹⁾ 선행의 대상에

52) Ibid., 587.

53) Ibid.

54) Longenecker, Richard N, *Galatians*, 609.

55) Stott, John, *The Message of Galatians*, 216.

56) Longenecker, Richard N, *Galatians*, 610.

57) deSilva, David A, *The Letter to the Galatians*, 590; Longenecker, Richard N, *Galatians*, 611.

58) Longenecker, Richard N, *Galatians*, 611-612.

59) Hays, Richard B, *The Letter to the Galatians*, 321-322.

있어서는 ‘모든 이에게’라는 성도뿐만 아니라 불신자까지 포함하는 것이며,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다.⁶⁰⁾ 그럼에도 우선순위는 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표현은 동료 성도들, 즉 하나님의 자녀된 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들에게 먼저 선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⁶¹⁾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의 계명(5:14)을 실천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필요한 방식이기 때문이다.⁶²⁾

IV. 갈라디아서 6:6-10의 멘토관에 대한 신학적 함의

갈라디아서 6장 6-10절에 나타난 공동체적 책임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통해 당대 로마의 교육 구조를 뛰어넘는 멘토의 정체성과 그 역할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멘토 권위와 메시지 : 그리스도의 계시와 십자가

멘토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그 기원을 두며,⁶³⁾ 인간적인 근거나 사색을 통한 것이 아니다.⁶⁴⁾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임을 단호하게 천명한다.⁶⁵⁾ 오직 갈라디아서에서만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부르심을 어떠한 인간적인 기원이나

60) Longenecker, Richard N, *Galatians*, 612.

61) deSilva, David A, *The Letter to the Galatians*, 590.

62) Ibid., 593.

63) Osborne, Grant R. *Galatians*, 62.

64) Luther, Martin, *Commentary on Saint Paul's Epistle to the Galatians*, 86.

65) Keller, Tim, *Galatians: Gospel-Centered Living*, 김성웅 역, 『갈라디아서: 복음을 만나다』(서울: 베가북스, 2013), 25.

매개와 대척점에 두고 진술한다.⁶⁶⁾ 그의 사도직은 특히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정당성을 확보한다.⁶⁷⁾

멘토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십자가이며,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역설적으로 선언한다.⁶⁸⁾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하셨다는 대속의 희생 진리를 담는다.⁶⁹⁾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역설이 되는데, 십자가가 본래 혐오감과 수치심, 공포심을 야기하는 상징이었기 때문이다.⁷⁰⁾ 이 십자가의 복음은 율법 준수를 내세워 영광을 구하려는 유대주의자들의 옛 질서를 폐지하는 역할을 하며, 복음의 독특한 표지가 된다.⁷¹⁾ 멘토의 신실성을 증명하는 표지는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는 육체의 표지와 대조적으로, 바울 자신이 박해를 당하면서 몸에 지니게 된 상처인 '예수의 흔적'이다.⁷²⁾ 이 흔적은 멘토가 그리스도의 소유권과 보호하에 있음을 증명한다.⁷³⁾

2. 멘토의 정체성: 헛된 영광을 거부하는 온유함

멘토는 헛된 영광(5:26)을 추구하려는 유혹을 거부함으로써 그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⁷⁴⁾ 헛된 영광은 자만에 빠져 자신에 대해 공허하거나 헛된 견해를 갖는 것을 의미하며,⁷⁵⁾ 이는 경쟁심이나 이기적인 야망을 낳아

66) Moo, Douglas J, *Galatians*, 100.

67) 이한수, 『갈라디아서』, 66.

68) Stott, John, *The Message of Galatians*, 234.

69) Keller, Tim, *Galatians For You*, 22.

70) Luther, Martin, *Commentary on Saint Paul's Epistle to the Galatians*, 508.

71) Ibid., 520-521.

72) deSilva, David A, *The Letter to the Galatians*, 610.

73) Longenecker, Richard N, *Galatians*, 637.

74) Keller, Tim, *Galatians For You*, 235.

75) Stott, John, *The Message of Galatians*, 197.

공동체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주된 원인이 된다.⁷⁶⁾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강요하는 것도 그들의 육체로 자랑하려는 욕망에 기인한다고 추정된다.⁷⁷⁾

멘토가 공동체 내에서 범죄한 지체를 바로잡는 행위(6:1)는 온유한 심령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⁷⁸⁾ 이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이며, 겸손과 타인에 대한 동정심을 포함한다.⁷⁹⁾ 바로잡는 행위의 목표는 삶과 심령의 변화를 촉진하는 치유적 고통이어야 한다.⁸⁰⁾ 이 온유함은 멘토가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자기 검증을 통해 얻어지는데, 이는 자신을 상대보다 낫다고 여기는 우월감이 풍겨 나와 상대를 망쳐 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⁸¹⁾ 멘토는 이처럼 자기 기만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의 행위를 살피는 개인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⁸²⁾

3. 제자도의 궁극적 목적: 새로운 피조물로의 변화

바울의 제자도와 윤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새로운 피조물(6:15)이 되는 것이다.⁸³⁾ 이는 십자가를 통해 유일하고 참된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존재를 재형성하고 재조정하는 그리스도-선물의 능력에 기반한다.⁸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구원과 연관된 오직 중요한 것이라는 신학적 기준

76) Keller, Tim, *Galatians For You*, 221

77) deSilva, David A, *The Letter to the Galatians*, 581

78) Keller, Tim, *Galatians For You*, 245

79) Osborne, Grant R. *Galatians*, 298

80) Keller, Tim, *Galatians For You*, 245

81) Ibid.

82) Osborne, Grant R. *Galatians*, 318

83) Barclay, John M. G. *Paul and the Gift*, 674

84) Ibid.

을 제시한다.⁸⁵⁾

이 새로운 창조 안에서는 할레나 무할레가 아무 효력이 없다는 선언을 통해⁸⁶⁾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남성과 여성 같은 옛 세상의 질서와 범주의 효력이 무효화된다.⁸⁷⁾ 즉, 멘토가 이끄는 제자도의 목적은 모든 종교적 차별의 세계를 전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로운 사람을 이루는 데 있다.⁸⁸⁾ 그리스도 사건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은 하나님의 가족에 입양된 아들과 딸로 구성되며,⁸⁹⁾ 이는 그들이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 삶이 재형성되는 새로운 의견 공동체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⁹⁰⁾ 이 새로운 공동체에서 멘토링은 공감, 환대, 책임, 소통의 사회적 영성을 구현하는 토대가 된다.⁹¹⁾

VI. 현대 그리스도 공동체에서의 멘토링 실천

현대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멘토링 실천은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갈라디아서가 강조하는 복음 안에서의 참된 자유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서로 확인하고 함께 실천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특히 유대주의적 행위 구원이나 도덕주의와 같이 오늘날 교회에 침투하는 현대적 다른 복음들의 위협에 맞서, 멘토와 멘티는 상호 책임적이고 관계 지향적인 교제를 다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성숙해져야 한다.⁹²⁾

85) Longenecker, Richard N, *Galatians*, 632.

86) Osborne, Grant R. *Galatians*, 338.

87) Hays, Richard B, *The Letter to the Galatians*, 334.

88) Moo, Douglas J, *Galatians*, 339-340.

89) deSilva, David A, *The Letter to the Galatians*, 590.

90) Barclay, John M. G. *Paul and the Gift*, 729.

91) 문시영, “바울의 제자도에 나타난 사회적 영성: 덕 윤리적 접근,” 『기독교사회윤리』 52(2022), 12.

따라서 본 장은 앞선 장들에서 규명된 갈라디아서 6장 6~10절의 신학적, 윤리적 원리를 바탕으로 실천 방안을 제시하되, 이 멘토 지원 윤리(6:6)가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공동체의 근본적인 상호 책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적용 범위를 확장한다.⁹³⁾ 멘토링의 신학적 지속 가능성은 ‘짐을 서로 지라’는 그리스도의 법(6:2)⁹⁴⁾을 성취하는 공동체적 윤리적 배경 속에서만 완전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전체 윤리적 흐름을 바탕으로,⁹⁵⁾ 현대 그리스도 공동체 내 멘토링의 목적(무엇을)과 방법(어떻게)에 적용 가능한 세 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상호 돌봄과 책임 이행

첫 번째,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구체적인 행위, 즉 공동체 구성원이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의 짐을 져주는 회복 사역의 실천에 핵심적인 목적을 둔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난다. 특히 현대 사회와 디지털 공간에서 빈번한 정죄와 비난 문화는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적 배척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의 멘토링은 범죄한 지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공동체 안으로 다시 통합시키는 회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멘토링의 목적과 실천 방법은 다음 <표 1>과 같다.

92) Longenecker, Richard N, *Galatians*, 540.

93) Osborne, Grant R. *Galatians*, 309.

94) deSilva, David A, *The Letter to the Galatians*, 576.

95) 이한수, 『갈라디아서』, 506.

〈표 1〉 적용1 : ‘그리스도법을 성취하는 상호돌봄과 책임 이행’에 따른 목적별 멘토링 방법

멘토링의 목적	멘토링의 방법
짐을 서로 저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것 (갈6:1-2)	① 물리적·정서적 짐 나누기: 무거운 짐은 시험, 압박, 슬픔, 죄의 결과 등 모든 종류의 어려움을 포함하며, ⁹⁶⁾ 멘토와 멘티는 서로의 짐 밑으로 들어가 분담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실현해야 한다. ⁹⁷⁾
범죄한 지체를 온유한 심령으로 회복시키는 것 (갈 6:1)	② 온유한 심령으로 회복 사역 수행: 죄에 빠진 지체를 바로 잡는 행위는 성령의 인도에 따른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⁹⁸⁾ , 지적의 목표는 심령과 삶의 변화이다. ⁹⁹⁾
개인적 책임감과 공동체적 지원의 균형을 맞추는 것 (갈 6:1, 6:5)	③ 멘토의 정기적인 자기 검증 의무: 멘토는 범죄한 지체를 도울 때 자기 자신을 살피 자신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 해야 하며(6:1), 동시에 각자는 자신의 짐(개인적 책임)을 지는 것(6:5)을 잊지 않아야 한다. ¹⁰⁰⁾

2. 복음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자기 의와 헛된 영광의 포기

둘째, 멘토링의 목적은 멘티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간적인 노력이나 비교를 통해 자기 의를 쌓으려는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육체의 일을 피하도록 돕는 데 있다. 멘토링 관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육체를 따라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이는 멘토와 멘티가 서로를 비교하거나 경쟁하게 만들어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한다. 따라서 멘토링의 핵심 과제는 인간적인 성취나 도덕적 우월감이 아닌, 오직 십자가만을 사랑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다. 이러한 복음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

96) Jan Lambrecht, “Paul’s Coherent Admonition in Galatians 6, 1-6: Mutual Help and Individual Attentiveness,” *Biblica* 78/1(1997), 44.

97) *Ibid.*, 45.

98) Euichang Kim, “‘Spirit of Gentleness’ and Korean Online Shaming: Restorative Approaches to Justice Addiction,” *Torch Trinity Journal* 27/2(2024), 25.

99) Lambrecht, “Paul’s Coherent Admonition,” 43.

100) Longenecker, Richard N, *Galatians*, 589.

점은 다음 <표 2>로 요약할 수 있다.

<표 2> 적용2 : '복음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자기 의와 헛된 영광의 포기'에 따른 목적별 멘토링 방법

멘토링의 목적	멘토링의 방법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겸손을 확립하는 것 (갈 5:26, 6:3-4).	① 비교 경쟁 의식 해체 훈련: 멘토는 멘티가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6:4), 오직 자신의 일을 살피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측정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¹⁰¹⁾
스스로 속이는 자만을 경계하는 것 (갈 6:3).	② 멘토/멘티의 정직한 자기 평가 수행: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 (6:3). ¹⁰²⁾ 이는 헛된 영광을 추구함으로써 발생하는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관계적 태도(5:26)의 해독제이다. ¹⁰³⁾
오직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자랑하는 것 (갈 6:15).	③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유일한 자랑거리로 삼도록 훈련: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듯이(6:15), 멘토링의 모든 과정은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 즉 육체(인간적 노력)를 자랑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 ¹⁰⁴⁾

3. 영적 심음의 원리를 공동체 내 지원으로 구체화

셋째, 멘토링의 목적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윤리적 삶을 지속하는 것이며, 이는 사역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공동체를 향한 인내 있는 선행을 통해 영생을 거두는 데 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은 사역자에 대한 존중과 선행의 지속성으로 증명된다. 바울은 멘토(가르치는 자)의 생계를 위한 물질적 후원과 공동체를 위한 봉사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영생을 거두는 하나의 영적 원리임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현대의 멘토링은 사역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구조적 지원과,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101) Jan Lambrecht, "Paul's Coherent Admonition in Galatians 6, 1-6: Mutual Help and Individual Attentiveness," *Biblica* 78/1(1997), 53.

102) Longenecker, Richard N, *Galatians*, 589.

103) Lambrecht, "Paul's Coherent Admonition," 41.

104) deSilva, David A, *The Letter to the Galatians*, 604.

인내를 훈련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실천 방안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적용3 : ‘영적 심음의 원리를 공동체 내 지원으로 구체화’에 따른 목적별 멘토링 방법

멘토링의 목적	멘토링의 방법
멘토의 사역 지속 가능성을 공동체적으로 보장하는 것 (갈 6:6)	① 멘토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의무 이행: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교제(6:6)를 실천해야 한다. 이는 사역자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적,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도움이다. ¹⁰⁵⁾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을 피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갈 6:7-8)	② ‘심고 거둔’의 법칙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멘티는 이기적이고 일시적인 만족(육체를 위해 심음)은 썩어질 것(파멸)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해 심는 행위(선행, 봉사)는 영생을 거둔다는 법칙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¹⁰⁶⁾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인내를 보이는 것 (갈 6:9)	③ 장기적 관점의 선행 인내 촉구: 멘토는 멘티가 선을 행하는 일에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봉사하도록 격려해야 하며, 때가 이르매 거둘 것이라는 약속을 통해 인내하도록 독려해야 한다.(6:9). ¹⁰⁷⁾
사랑 실천의 범위와 우선순위를 확립하는 것 (갈 6:10)	④ 기회 있는 대로 우선순위에 따른 선행: 멘토링 공동체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행하는(6:10) 실천적 우선순위를 두어 사랑을 구체화해야 한다. ¹⁰⁸⁾

VI. 나가는 말

본 연구는 갈라디아서 6장 6절 이하의 윤리적 권면을 중심으로, ‘말씀

105) Jan Lambrecht, “Paul’s Coherent Admonition in Galatians 6, 1-6: Mutual Help and Individual Attentiveness,” *Biblica* 78/1(1997), 53

106) Daramola Yetunde Bamidele et al., “Pauline Concept of Sowing and Reaping in Galatians Chapter 6: 7-8 and Its Implication for Contemporary Church,” *Arts & Humanities Open Access Journal* 7/2(2025), 27.

107) Aaron Michael Jensen, “Μή ἐκλόμενοι in Galatians 6:9,” *Tyndale Bulletin* 69/1(2018), 97-98.

108) Longenecker, Richard N, *Galatians*, 612.

을 가르치는 자'와 공동체 간의 관계를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선 '전인격적 교제'를 하는 관계로 전제하여, 멘토와 멘티라 재정의하고, 이 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상호 책임과 윤리적 실천의 신학적 기초를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6장 10절까지의 문맥에서 특히 6장 6절-10절을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는 것을 막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인 윤리적 실천으로 나타나야 함을 명시한다.

연구 결과, 멘토링 관계의 핵심 윤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데 있으며, 이는 곧 '짐을 서로 지는' 상호 회복 사역을 온유한 심령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동체적 책임과 더불어, 각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짐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개인의 책임이 보완적으로 강조된다. 이러한 윤리적 균형을 유지하는 목적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투기하거나 노엽게 하는 것을 막고, 아무것도 아니면서 된 줄로 생각하여 스스로 속이는 교만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신학적 원리들을 토대로 현대 그리스도 공동체에 적용하고자 하는 멘토링의 실천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여러 사회·문화적 기준으로 타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멘토링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과 자유를 경험하는 유일한 기초인 공감과 환대를 통해 모든 지체를 포괄하는 진정한 교제를 지향해야 한다. 둘째, 실족한 지체를 일으켜 세우거나 연약함으로 넘어진 지체를 돌이킬 때는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하며, 멘토와 멘티 모두 헛된 영광을 피하고,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시험하여 교만에 빠지지 않는 겸손한 자기 검증을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셋째,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는 인내를 공동체적으로 촉구하며,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6:10) 먼저 선을 행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의 내적 연합과 영적

생명력을 강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 6장의 상호 책임적 멘토링 윤리는 현대 교회가 개인주의와 율법주의적 분열을 극복하고, 성령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새로운 의견 공동체로 재구성되는 데 필요한 신학적 기반과 구체적인 행동 규범을 제공하는 것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 문시영. “바울의 제자도에 나타난 사회적 영성.” 『기독교사회윤리』 52(2022), 9-36.
- 박희영. “고대 로마의 교사연구.” 『교육철학연구』 36/3(2014), 25-45.
- _____. “퀸틸리아누스의 『웅변가교육』에 나타난 ‘선한 사람’(Vir Bonus)의 의미.” 『교육철학연구』 35/4(2013), 29-50.
- 이민규. “그리스로마 문화의 $\chi\acute{\alpha}\rho\iota\varsigma$, 테리다의 불가능한 선물, 그리고 로마서의 $\chi\acute{\alpha}\rho\iota\varsigma$.” 『신약연구』 10/2(2011), 229-257.
- 이한수. 『갈라디아서』. 수원: 선교햇불, 2003.
- 차정식. “바울의 ‘코이노니아와 사회복지 사상.’ 『신학사상』 136(2007), 71-90.
- Barclay, John M. G. *Paul and the Gift*, 송일 역. 『바울과 선물: 사도바울의 은혜 개념 연구』.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 deSilva, David A. *The Letter to the Galatians*. 김귀탁 역. 『갈라디아서』. 서울: 부흥과개혁사, 2022.
- Hays, Richard B. *The Letter to the Galatians*. 안영혁·이성하 역. 『NIB 갈라디아서 주석』. 서울: 도서출판 그리스심, 2021.
- Keller, Tim. *Galatians: Gospel-Centered Living*. 김성웅 역. 『갈라디아서: 복음을 만나다』. 서울: 베가북스, 2013.
- _____. *Galatians For You*. 윤종석 역. 『당신을 위한 갈라디아서』. 서울: 두란노서원, 2018.
- Longenecker, Richard N. *Galatians*. 이덕신 역. 『WBC 갈라디아서 주석』. 서울: 솔로몬, 2003.
- Luther, Martin. *Commentary on Saint Paul's Epistle to the Galatians*. 김귀탁 역. 『마르틴 루터 갈라디아서』. 서울: 복 있는 사람, 2019.
- Moo, Douglas J. *Galatians*. 최원용 역. 『갈라디아서』.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8.
- Osborne, Grant R. *Galatians*. 김진선 역. 『갈라디아서』. 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09.
- Schreiner, Thomas R. *Galatians*. 김석근 역. 『강해로 푸는 갈라디아서』.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17.
- Stott, John. *The Message of Galatians*. 정옥배 역. 『BST 갈라디아서 강해』. 서울:

IVP, 2008.

Bamidele, Daramola Yetunde, et al. "Pauline Concept of Sowing and Reaping in Galatians Chapter 6:7-8 and its Implication for Contemporary Church." *Arts & Humanities Open Access Journal* 7/2(2025), 27-32.

Jensen, Aaron Michael. "Μῆ ἐκ λ υ ό μ ε ν ο ι in Galatians 6:9." *Tyndale Bulletin* 69/1(2018), 97-110.

Kim, Euichang. "Spirit of Gentleness and Korean Online Shaming: Restorative Approaches to Justice Addiction." *Torch Trinity Journal* 27(2024), 24-43.

Lambrecht, Jan. "Paul's Coherent Admonition in Galatians 6: 1-6: Mutual Help and Individual Attentiveness." *Biblica* 78/1(1997), 33-56.

Rivera, Orlando. "Mentoring Stag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Barnabas and Paul." *Biblical Perspectives* (May 2007), 1-9.

Robinson, Rodney P. "The Roman School Teacher and His Reward." *The Classical Weekly* 15/8(1921), 57-61.

논문투고일: 2026년 02월 28일

심사개시일: 2026년 03월 16일

게재확정일: 2026년 04월 08일

• 국 문 초 록 •

본 연구는 갈라디아서 6장 6-10절에 나타난 가르치는 자와 공동체의 상호책임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말씀을 가르치는자(τῷ κ α τ ἡ χ ο ῦ ν τ ι)'를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닌 '멘토(Mentor)로 재정의한다. 이 관계는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삶과 영적 자원을 공유하는 전인격적인 '코이노니아(κ ο ι ν ω ν ι α)'를 전제한다. 바울의 이 명령은 헬라-로마 사회 교사의 구조적 종속성과 율법 준수 여부로 이웃을 배척했던 유대 전승의 배타성을 극복하는 대안적 공동체 윤리로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를 복음안에서 대등한 동반자적 관계로 설정한다. 신학적으로는 '심음과 거둠의 원리'(6:7-8)를 통해 윤리적 실천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영적 원리로 확장하며, 육체를 위한 심음이 '씩어질 것'을 거두는 반면 성령을 위한 심음은 궁극적으로 '영생'을 거둔다고 강조한다. 멘토의 정체성은 헛된 영광을 거부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지체를 바로잡는 자기 검증에서 나오며, 제자도의 궁극적 목적은 할례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현대 공동체에서 멘토링이 멘토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6:6)을 통해 사역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나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인내(6:9)를 촉구하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6:10) 먼저 선을 행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주제어: 갈라디아서 6:6-10, 바울의 멘토링, 코이노니아, 상호 책임, 성경적 멘토링, 기독교윤리
